

「원전 센터」 재공고를 읽고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정부는 지난 2월 5일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생겨나는 방사성 폐기물을 치울 장소(원전수거물 센터;「원전센터」) 공개 모집을 중앙 일간지에 재공고하였다.

지난해에 공고된 내용과는 다른 점들이 많긴 해도, 지금 것과 비슷했던 정부의 공모를 통해 부안군 위도를 원전센터로 지정했던 적이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문제로 밤잠을 설쳤고, 생업을 중단했으며, 때론 찬반 논의 현장에서 혈투까지 벌리면서 서로 싸웠다. 급기야 지정된 '부안군 원전센터 후보지'를 대통령의 특단 조치에 따라 원점으로 돌렸고,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위의 재공고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전센터」는 원전으로부터 전기를 얻고 있는 우리에게겐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 건설되어 4개의 원전들에 흠어져 관리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들을 거기에 모아 안전하게 관리할 에너지 관련, 한 센터로서의 구실을 해야 함은 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그럼에도 '어디에 그들을 버리고', '보관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관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갈팡질팡해온 것은 사실이다. 정책의 방향은 옳았다.

하지만, 그것을 수용해야 될 예비 후보지로 비춰지면, 해당 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 투쟁이 일어나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없었다.

거기에는 잘 알려진 영문 단어를 줄인 '넘비' 그리고 막연히 잘못 알려진 폭발의 우려,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찬·반 논란에서 해당 주민들이 패로 갈려 서로 다툰 것이다.

오죽했으면, 학문의 전당인 관악 캠퍼스 안에 '원전수거물'을 옮겨오자는 교수님들의 성명서 발표까지 나왔을까?

그리고 2월 10일자 <한국경제> A19쪽에 "과기 분야 27개 정부 출연연 기관장-성명...안전성 논쟁 중단 촉구" 기사 내용도 교수님들의 돌출 행동으로 불거진 관악산 논쟁들을 잠재우려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한 때 세계 토픽이 되고도 남을 -장관실 앞 복도에 포장된 일부 방사성 폐기물을 옮겨다 놓고 방문자들에게 몸소 안전을 실천해 보여준- 장관도 있긴 했었지만, 부안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늘도 거기에는, 심하게 꼬집자면, -생사를 가름할 사투의 분위기가 충만돼 있다.

필자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는「원전 센터」건설을 내고향에서 유치해 주기를 바랐다. 작년 초에 고향 군수에게 이를 건의했다가 반대쪽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 경험도 했다. 그런 돌출 행동은 위의 경우들처럼, '안전하다'는 개념과는 한 발 더 나간 차원이다.

비록 불안전하고 기피할 물질일지라도 그로 인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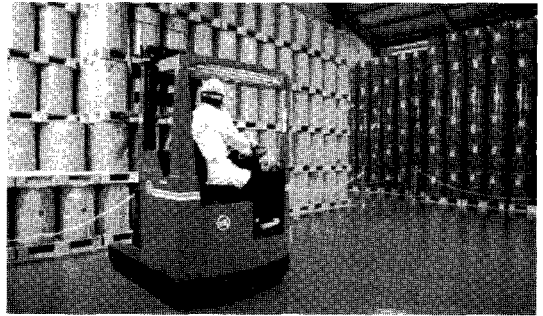
필자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는「원전 센터」건설을 내고향에서 유치해 주기를 바랐다.
 비록 불안전하고 기괴할 물질일지라도 그로 인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역기능 쪽의 우려보다는
 수백만 배의 순기능 쪽 이득(현금 지원, 양성자 가속기 그리고 한수원 본사 이전 등으로 오지가
 중-도시 규모로 발전할 미래 기대치 그리고 후손들이 받게 될 혜택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대 때문이었다.

부의 지원 규모가 역기능 쪽의 우려보다는 수백만 배의
 순기능 쪽 이득(현금 지원, 양성자 가속기 그리고 한수
 원 본사 이전 등으로 오지가 중-도시 규모로 발전할 미
 래 기대치 그리고 후손들이 받게 될 혜택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대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한 철학적 바탕에다 '시
 장 경제 원리'에 따른 것이었다. '철학적 바탕'이란 '발
 상의 전환(paradigm shift)'으로서 역기능의 우려(남
 비와 안전성)를 마음속으로부터 지워버리고 순기능의
 이득을 챙기자는 논리다 (주승환, 기술사 Vo1,34(6)).

그 글에서 필자가 했던 한 제안(태운 원전 원료를 '영
 구 처분' 대상이 아닌 '임시로 보관'할 대상으로 취급하
 자는 제의)이 이번 재공고에 반영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
 고 놀랐다. 누가 어떤 경로로 그런 착상을 그 공고에 반
 영시켰는지는 앞으로 알려지게 되겠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필자 외에도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세계 경제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이란 천문학적인 비
 용이 들게 될 '거대 패션(fashion) 산업'이다. 에너지
 소스(source)의 발달은 나무의 땀관에서 석탄으로, 석
 유로, 원자력으로 발전했다. 앞으로는 미래의 주된 에너
 지 소스가 될 태양열, 태양빛의 이용, 풍력,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모습들이 지배할 단계들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것이다.



이런 추세는 에너지의 소스가 우리 삶의 질과 문명을
 뒷받침할 패션 개념이래야 가능하다. 'doing more
 with less'란 '에너지어링-독트린'은 에너지 산업의
 근본적인 틀이다. 패션 산업은 그 틀 속에 들어야 발전
 한다. 원자력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방사성 폐기물 문제
 를 해결하면)로 변모할 가능성도 엿보인다(주승환, 기술
 사 2004(1)).

지난 20세기는 석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들이 패션
 산업을 주도했던 시대였다. 21세기는 새로운 개념의 미
 래형 에너지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이
 자, 인간이 만들어 가야 될 대형 연구 과제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논란은 그 명제에 비한다면 무거운
 한참 가볍다. 부안이든 다른 곳이든 이번 재공고가 해당
 주민들이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